

지혜사랑 시인선

016 아마도 <small>(문학예술위원회의 우수도서 선정)</small>	안정옥	211	당신을 다루는 법 <small>(문학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유현서
032 달궁아리랑 <small>(장편서사시)</small> <small>(문학예술위원회의 우수도서 선정)</small>	송수권	220	캔버스에 세우는 나라 <small>(문학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이항아
040 도배일기 <small>(문학예술위원회의 우수도서 선정)</small>	강병길	257	등근 방 258 호수의 책	이승애 강익수
044 한결레의 즐거운 상상 <small>(문학예술위원회의 우수도서 선정)</small>	이항란	259	환생하는 꿈 260 지는 것에 대한 화해	이선희 최윤경
053 맛을 보다 <small>(문학예술위원회의 우수도서 선정)</small>	양애경	261	나를 사랑하는 시간 262 아빠 찾기	김근길 김은경
054 꽃月某日의 별자리 <small>(문학예술위원회의 우수도서 선정)</small>	황화주	263	누란의 미녀 264 도망 칠 수 없다면,	박방희 김세하
057 불췌 <small>(문학예술위원회의 우수도서 선정)</small>	이 은	265	복극 향로 266 오상五常	김정웅 외 홍영택
068 뜰채로 죽은 발을 건지는 사람	반철환	267	질문 268 그와 나의 아프리즘	김형식 백승자
069 웃음의 힘	반철환	269	시간은 기억의 수레를 끌고	배기환
070 잔광광 보호구역 <small>(문학예술위원회의 우수도서 선정)</small>	반철환	270	능스와 핀 집 271 화요일의 목록	정미영 박설하
078 세상을 겨안다 <small>(문학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small>	나태주	272	박쥐우산을 든 남자 273 바위를 낚다	김병영 이병연
092 메리네 연탄가게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김혜경	274	따뜻한 모서리 275 글자 사이로 바람이 불면	민정순 황박지현
096 짓가닥 끝에 피는 꽃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홍종빈	276	꽃도 무거우면 점이 되는가 277 거실에 사는 고래	이항이 조옥엽
099 꽃밭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박정원	278	그들의 꿈을 깨우다 279 물마중	강은희 유계자
100 새해 첫 기적	반철환	280	살리는 공부 281 그림밤을 이기다	정동재 장경순
105 민들레 행복론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고경국	282	어초장 283 세상에 지는 꽃은 없다	탁경자 김병수
107 흰쪽이 쓸쓸하다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정혜영	284	벚꽃 칸타타로 떨어지는 봄 을 본다	전금란
108 달 춤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이해웅	285	벌치, 고래를 꿈꾸다	박용숙 외
109 추가 서면 시계도 선다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구재기	286	당신은 꽃을 쓰세요 나는 시 를 쉴테니	이인형
111 허공에 가적을 퍼다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송수권	287	마우스 패드에는 쥐가 살 고 있다	김충경
121 틈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윤수하	288	우리, 구면이지요? 289 남자들이여 출산하라	조숙진 송영숙
127 삼천포 항구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김 경	290	꽃의 속도 291 너무나 선한 눈빛	김재연 강상윤
128 정자낭구 안동네 사람덜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김충자	292	이명 <sup>ㅁ</sup> 293 안병, 잘 지내지?	배영운 김영석
136 거대한 울음 <small>(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small>	박정옥	294	슬픔도 좋아면 단맛이 난다 295 울음, 태우다	임영남 현상연
144 사람마다 별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강서완	296	나의 온 삶은 훨씬 짧게 297 내 인생의 스케치	안정옥 이종분
149 붉은 벽돌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최해돈	298	모과의 귀지를 파내다 299 우리는 저마디의 기타줄	이영선 이순화
156 모자의 그늘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김명이	300	포경의 칼 301 D-day	우종숙 백지 외
172 현판문은 블랙홀이다 <small>(세종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남상진	302	몇 번이고 고쳐 쓴 보고서 303 저 환한 숲	홍순화 홍정문
184 슬픔이 맑다 <small>(문학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이복규	304	식장산 305 갑모산방	정순자 정하선
186 독줄도 사랑받고 싶다 <small>(문학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조성화	306	푸른 음표 하나 바람이 될 때 307 도레미파솔라시도	홍정숙 김종경
191 평평한 이별 <small>(문학나눔 우수도서 선정)</small>	최덕순	308	우리의 농도 309 꽃이 지는 문으로 피는 너	이두애 서호식
199 산골부리에서 사랑을 읽다 <small>(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small>	박수진	310	군말 없이 311 유랑	김길중 김학우

권예자 시인은 이번 시집 『습작, 작품이 되다』를 통해 몸에 대해 정치한 사유를 하고 있고, 죽음을 자각함으로써만 삶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시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들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항암 주사 부작용으로 눈만 뻗한 사랑하는 둘째의 앙상한 손”(『노란 불날의 기도』)이라든가 “천국으로 떠난 우리 둘째 프란치스코”(『습결 머무는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처소에 머물던 자녀와의 결별은 시인에게 가혹하리만치 침예한 시적 고투를 요구했을 것이고, 몸을 가진 인간이기에 사라져 버리는 운명의 비극이 탄생했을 것이다. 몸은 단순한 물체가 아닌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중심임을 설파하는 지점에, 그리고 유려한 신체 페미니즘의 여성적 글쓰기의 핵심에 권예자 시인의 이번 시집이 값하는 탁월한 시적 성취가 드러난다.

— 김명원 시인, 대전대 교수

권예자 시인의 「진통제」는 ‘약 중의 약’이자 천하무적의 상승군주이고, 그 어떤 적대자와 반란자도 다 때려눕힌다. 아름다움은 만병통치약이고, 그 어떤 경전보다도 더 힘이 세고, 그 어떤 종교창시자보다도 더 전지전능하다. 아름다움은 진통제이고, 진통제는 만병통치약이고, 진통제는 모든 영혼과 정신을 중독시킨다. 전지전능한 신과 이상낙원 없이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통제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도, 예술도, 정치도, 경제도, 운동도 다 마약이고, 그 중독성의 아름다움을 지닌다. 권예자 시인의 「진통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상의 꽃’이고, 권예자 시인의 역사 철학적인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다.

— 반경환 애지 주간, 철학예술가

값 12,000원

지혜  
사랑  
312

습작,  
작품이  
되다

권  
예  
자  
시  
집



습작, 작품이 되다  
권예자 시집

312  
지혜사랑



권예자

권예자 시인은 대전에서 태어났고, 국가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다. 2002년 『동전 세 날』으로 『창작수필』, 2004년 『구두 한 짝』 외로 『문학저널』(시부문)을 통하여 등단을 했다. 시집으로는 『숲이 나를 보고』, 『비밀일기장』, 『가문비나무 기록장』, 수필집으로는 『내안의 피에타』, 『봄비, 꽃잠 깨다』, 『수필이 나를 쓴다』, 『추억, 빛으로 물들다』 등이 있다. 창작수필문학상, 원종린수필문학상, 황금찬시문학상 등 십여 회의 수상을 했으며, 현재 한국문학, 공무원문학, 백지시문학회, 꿈과 두레박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예자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습작, 작품이 되다』는 ‘자화상’이며, 이자화상의 역사는 습작의 역사이다. 더없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더없이 정업하고 숭고하다. 『습작, 작품이 되다』. 권예자 시인은 이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하기 위하여 80평생이 넘도록 온몸으로 절차탁마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이메일 bombi42@hanmail.net

book design

